

NEWS 방송계 동향

EBS

EBS 디지털통합사옥 준공



2월 13일 디지털통합사옥 건립공사의 준공이 완료되었다. 준공에 따라 8월까지 방송 인프라 구축이 진행될 예정이며, 디지털통합사옥에는 TV스튜디오 5실, 라디오스튜디오 4실, 이러닝스튜디오 12실, 더빙실 3실 등이 구성될 예정이다.

EBS play 앱 출시, EBS 실시간 채널 & 약 10만개 동영상 콘텐츠 시청 가능



EBS play는 EBS가 제작한 약 10만개의 주문형 비디오(VOD) 및 실시간 채널을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영상 콘텐츠 시청에 최적화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EBS의 방대한 동영상 콘텐츠를 총 18개의 카테고리 분류, 주제별 콘텐츠를 제공하고, 고객 선호도 및 콘텐츠 사용 이력을 바탕으로 추천 등의 기능도 포함돼 있다.

SBS

제1차 정기총회 및 대의원 회의 개최



SBS 방송기술인협회는 2017년도 제1차 정기총회 및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6년 회계 감사, 2017년 예산안 및 활동계획 승인 그리고 회칙 개정 및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 사업계획으로 KOBAS 행사 개최, 협회 등반대회, 송년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KBS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ATSC 3.0 UHD 방송 송출



2017년 2월 10일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열린 FIS에어리얼 스키월드컵이 KBS 1TV UHD(CH52)를 통해 성공적으로 생중계되었다. 테스트이벤트는 선수단이 올림픽대회가 열리는 지역 및 경기장에서 대회를 미리 경험하여 올림픽 본 경기에 보다 친숙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이며, KBS는 본 테스트 이벤트를 UHD 방송으로 생중계함으로써 2018년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UHD 제작/송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2월 14일 KBS 하모니 광장에서 UHD 쇼터, 걸어서 세계속으로 등 UHD 제작 콘텐츠를 송출·시연하는 등 성공적인 UHD 본방송 시행을 위해 다양한 사전 작업 및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아리랑국제방송

아리랑국제방송, BTN 불교TV 업무협약 체결



아리랑국제방송(사장 문재완)과 BTN 불교TV(대표 구본일)가 1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아리랑 국제방송 사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국내 템플스테이와 한국의 사찰문화를 전 세계 방송인 아리랑TV를 통해서 소개하게 된다. 또한 BTN 불교TV가 제작했던 한국 전통문화관련 콘텐츠를 재제작하여 아리랑TV의 글로벌네트워크를 통해 방송함으로써 한국전통문화와 불교문화관광지를 전 세계 시청자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CBS

CBS 시네마, 영화 <위대한 임무> 3월 개봉



2017년 CBS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감동실화 <위대한 임무>가 3월 개봉한다. 영화 <위대한 임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점령하의 네덜란드 대학생들이 비밀조직인 '틴에이지 아미'를 결성해 독일군에 저항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실감나게 담아내고 있다.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을 수상하여 탄탄한 작품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밴쿠버 종교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며 기독교적인 가치까지 높이 평가받았다.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cbscinema)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위대한 임무> 전용 예매권을 제공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 UHD 가입자 50만 돌파



KT스카이라이프의 초고화질(UHD) 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50만 가구를 넘어섰다. 지난 2015년 6월 위성 UHD 방송을 시작했으며, 현재 5개 UHD 채널을 서비스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화면의 명암이 더 뚜렷한 'Live HDR'(High Dynamic Range) 상용 서비스는 물론 지난해 위성방송 최초로 선보인 안드로이드TV 상품 'skyUHD A+'를 통해 UHD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 MBC

대전 MBC, 차세대 방송기술 교육 진행



대전 MBC는 UHD TV 방송망 구축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2박 3일간 차세대 방송기술 교육을 진행해 콘텐츠 기획과 제작부터 카메라 세트업 그리고 촬영과 후반 작업 등 UHD 방송

기술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진행했다. UHD 교육 전문가인 김상일 서울예술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대전을 포함한 제주, 전주, 대구 등의 지역 MBC 카메라 감독 20여 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도 높은 교육 일정에 참가했다.

NHK

NHK 제46회 방송기술전 개최



NHK가 지난 2월 26일~28일 3일간 NHK 방송센터에서 제46회 방송기술전을 개최했다. 전시회에서는 8K 슈퍼하이비전(SHV) 중계차와 8K 소형 카메라, 후지논의 8K 줌렌즈, 4K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롯해 스포츠 중계방송에서 사용되는 스피드건 신호변환시스템 등 NHK의 최신 방송제작 기술 및

장비제조사와 공동 연구한 장비 및 시스템이 전시되었다.

특별전으로는 '8K 타임머신'으로 자신의 '출생년도'와 '다시보고 싶은 나이'를 입력하면 NHK의 약 70년간 1,300여 프로그램의 영상이 8K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이 기술은 NHK와 미국 MIT 미디어랩, NHK MT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대하드라마 '정령의 수호자'의 4K, 8K HDR 제작 현장을 26일에 한해 관람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했다.

BBS

BBS, 불교 교육 프로그램 대폭 추가 편성



BBS는 지난 2월 13일부터 '무비 스님의 대방광불화엄경', '이종표 교수의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불교인재원의 불교경전과 선어록'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했다. 매일 방송되는 '무비 스님의 대방광불화엄경'은 무비 스님이 직접 화엄경에 대해 강설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세한 설명과 풀이로 시청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강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종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진행할 '이종표의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은 반야심경을 니까야로 해석하며 시청자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불교인재원의 불교경전과 선어록'에는 저명한 강사진이 대거 투입돼 초기불교서부터 대승불교, 조사선어록까지 쉽게 강의한다.

YTN

YTN 다큐멘터리 수상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2016년 11월에 방영되었던 YTN 다큐멘터리 3부작 '마을 이야기'가 2017 케이블TV대상 교양·다큐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